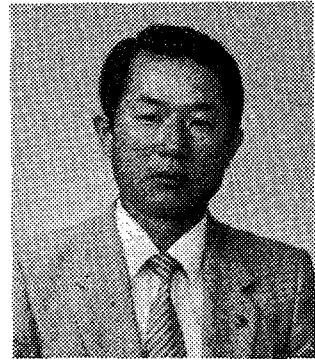




환경보전과 이기주의



신길웅 / 환경관리공단 홍보실장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굴뚝연기와 공장폐수에 이르기까지 온통 공해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이 생활주변에 가득찬 느낌이다. 거주지역 근처에 공해 공장이라도 있을라치면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서 피아노소리만 조금 크게 나도 이웃을 환경문제로 고발하는 것이 요즘 세태다.

사람들이 이렇듯 공해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발하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생활주변에서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을 차단하고 생활주변을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나간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공해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기에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 자기 가족들만 환경공해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청정채소 같은 무공해 식품들이 불타나게 팔리고 설악산이나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실어온 생수의 주문이 쇄도하

며,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을 보면 염려스럽기 조차하다.

이같은 일들이 사실로 나타나 무공해 식품조차도 남발되면서 사실은 공해식품이 무공해 식품으로 둔갑한 것이라는 가짜 무공해식품 파동이 있기도 했고 가짜 생수를 만들어 팔아온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후기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가 팽배해져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해문제에 대한 의식에서도 예외일 수 없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예컨데 도금공장이나 염색공장 등 공해업소를 경영하는 기업주가 공해방지 시설의 정상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워 그저 눈가림으로만 해놓고, 사실은 기회있을 때마다 악성폐수를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보내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서도 이 기업주는 자기 가족에겐 설악산이나 제주도에서 실어온 생수를 사마시게 하고, 농

약을 사용하지 않은 무공해식품을 비싼값에 배달해서 배달해서 먹게 하고, 오염된 공기를 피해 전문주력을 갖고 산다고 하자. 우리나라의 공해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식의 이기주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공해 해결 접근방법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일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물론 민주사회에서의 개인은 자신에게 밀려드는 환경공해요인을 최소한 거부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이 무공해 식품을 먹고 주말농장 같은 것을 지어 쾌적한 환경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해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는 공해문제뿐 아니라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마저도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공해의 피해자이기만 하고 이렇게 공해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할까? 우리 스스로 공해를 유발하는 일은 없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행락철 유원지나 등산길은 물론이고 요즘 들어서는 농촌의 후미진 곳만 둘러봐도 쓰레기가 합부로 버려져 있어 보기조차 거북해진다. 엄청난 인과가 산으로 저수지로 물러가는데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는 곳은 드물다. 농촌 또한 경작지 곳곳에 폐비닐과 농약 빈병이 치워지지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있고 어디서나 쉽게 수북히 쌓아놓은 쓰레기더미를 발견할 수 있다. 도로가 잘 뚫린 공원이나 고속도로 주변이면 또 몰라도 깊은 산속 계곡이나 저수지, 외진 농촌에서 무슨 도리로 여기저기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겠는가.

결핍하면 정부탓을 하고 행정력 부재를 한탄하곤 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네지만 유원지와 우리 생활 주변이 쓰레기에 관한 한 행정부를 너무 탓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저급 공해들은 「나하나쯤이야」하는 우리 자신들의 이기주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시개미의 지혜를 곱씹어본다. 모든 생명있는 유

기체가 생명력을 유지해가는 방식엔 저마다 신비로움이 있게 마련이지만 가시개미의 그것은 우리에게 암시적 교훈을 주고 있다. 협동적이고 희생적인 생태는 개미와 공룡의 생활방식으로 새삼 흥미로울게 없다.

그러나 가시개미는 풀잎을 잘라다 동굴속에 쌓고 그 풀잎을 씹어 그곳에서 자라는 박테리아를 식량으로 삼는다고 한다. 어쩌면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미물들은 농업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박테리아농사로 발생한 부산물들과 자신들의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가시개미는 이일마저 깔끔하게 해낸다고 한다. 개미굴속에 일정한 장소로 쓰레기와 오물 처리장으로 지정해 놓고 모두가 협동해서 어김없이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그곳에 버리고 묻는다고 한다. 가시개미들은 개미굴속을 쾌적한 청정 환경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일찌기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미물인 개미조차 자신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보전코저 협동하고 실천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나하나쯤이야」하는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빠져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 공해문제가 「나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생활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공장폐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홍보교육활동을 널리 전개해야 한다. 공해문제에 대한 이기주의적, 가족주의적인 접근으로부터 벗어나서 산업화된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한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는 공업이 발달한 선진외국처럼 공해문제가 극심한 정도는 아니며 아직은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의한 저급공해라는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합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기업주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의식만 갖는다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는 상당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